

전주시·완주군의회 새 교섭단체 출범

전주 '혁신진보시민연대' 완주 '주민혁신연대' 출범 혁신·진보·무소속 등 비민주계 의원들 참여 민주당 중심 의회 운영서 다당체제 운영 불가피



조국혁신당 소속 전북 광역·기초의원 당선인들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출범을 공식화 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에 새로운 교섭단체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의회 구도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소속 김나영 전북도의원, 경현철 전주시의원, 이수진 전주시의원, 윤여연 완주군의원 등 4명의 의원은 지난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주시의회에서는 조국혁신당 소속 경현철, 조우영, 홍대규, 채민석, 이수진 시의원 5명과 진보당 소속 최한별 시의원 1명, 무소속 양영환, 김현덕, 채영병, 최영심 시의원 4명 등 모두 10명이 참여한 교섭단체 '혁신진보시민연대'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참여 의원들은 "전주시의회의 일당 독점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이라며 "경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정당과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그동안 전주시의회가 행정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분히 수행

하지 못했고 의회의 경제 기능도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주에 마침표를 찍고 의회의 경제 기능을 복원해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새로운 의회 운영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진보시민연대는 앞으로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과 취약계층의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며 민생경제 회복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기득권의 정

파에 있는 민주당을 향해 △의석수를 앞세운 오만한 일당 독점과 의회 사유화 중단, △교섭단체가 없는 지역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의회 구성의 원칙을 독점에서 공존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교섭단체 출범으로 전주시의회는 기존 민주당 중심의 의회 운영 방식에서 다당 협력과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상임위원회 운영 등 의회 전반에서 협상과 조율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완주군의회에서도 새로운 교섭

단체 구성이 추진되면서 지방의회 내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완주군의회 윤여연 원내대표는 같은 당 이효진 군의원이 대변인으로, 무소속 임귀현 군의원이 부대표로 활동하며 3인의 군의원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민혁신연대'로 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색의 의회 운영에서 이제는 다당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져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운영 과정에서 여야 간 정책 경쟁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변함 없이 소통·공감하는 자세로”

김우민 군산시장, 임기 종료 앞두고 새출발 다짐

군산시의회 제9대 후반기 김우민 의장이 변함없이 지역주민들과 소통과 공감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에 따르면, 김우민 의장은 오는 30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군산시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군산시민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지난 시간은 제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며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군산의 내일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장의 자리는 개인의 명예보다 시민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자리였다"며 "작은 민원 하나 지역 현안 하나에도 시민의 삶이 담겨 있다는 마음으로 의회를 이끌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행보에 대한 굳은 의지도 밝혔다.

김우민 의장은 "이제 정든 군산시의회를 떠나 전북자치도의회라는 더 넓은 무대로 자리를 옮기지만 저의 뿌리는 언제나 군산"이라며 "도의회에서도 변함없이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군산의 도약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행동으로 쏟아부었다"고 약속했다.

/군산=김만호기자

도, 민선9기 도정 출범 국가예산 대응 본격화

이번주 주요 일정 발표
이원택 도지사 취임식
내달부터 신규사업 반영
중앙부처 대응 나서기로



이 지사는 국립입실호국원 참배를 시작으로 도청 현안부서 방문, 기자실 방문, 간부 신고, 직원 오찬 취임식, 전북특별자치도의 회 개원식 참석

전북특별자치도 이철규 대변인은 28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마무리와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다음 주 주요 도정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새로운 전북의 출발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가예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북도는 28일 민선 8기를 이끌어 온 김관영 도지사의 이임식을 개최한다. 이임식과 함께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기획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로 이동해 재경 전북도민회가 주관하는 수도권향우 초청 소통 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도내 천리길 조성사업을 확대해 오는 2028년까지 3천 km 규모의 걷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 복합소재를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집중 홍보하며, 전북을 방산 공급기지로 육성하는 방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릴 예정이다.

특히 무주 지역 현대로템 투자 선도지구 사업이 정부 평가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1일에는 제37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출된 이원택 도지사의 취임식이 오후 2시에 도청 공영장 3층에서 열린다.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대상을 수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우수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평가를 받게 된 것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전북의 정책 역량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7월 2일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된다. 전북도는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와 KT가 공동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119 긴급구조 통신망'에 감시 시스템도 본격 가동된다.

7월 3일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1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해 전주·군산 등 시군과 함께 전북 관광자원을 홍보한다.

국가예산 확보 활동도 본격화된다. 전북도는 6월 정부 부처 예산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7월부터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와 시군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예산정책협의회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규 대변인은 "민선 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가 본격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가예산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 도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산업·정책·AI 아우른 실전형 교육... 민주도당, 민선9기 당선인 역량 강화

정읍 JB금융 아우름캠퍼스서 워크숍... 미래 대응능력 제고
현대차그룹 신승규 부사장·우석대 강원국 교수 등 강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실무능력 향상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정읍 JB금융 아우름캠퍼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을 연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신승규 부사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하며 정책 역량과 미래 대응 능력 제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정읍 JB금융 아우름캠퍼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당선인들의 의정 및 행정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선거 당선인 205명이 참석했으며,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전북의 미래 산업과 지방정책, 리더십, 인공지능(AI) 활용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첫날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신승규 부사장이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계획'을 주제로 강연하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

이어 우석대학교 강원국 교수는 '더더의 말과 글'을 주제로 지방자치 시대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소통 능력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북대학교 류덕산 교수는 '피지컬 AI로 꿈꾸는 전북 대도약'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산업 변화와 전북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으며, 부경대학교 서재호 교수는 '지방자치 시대 지방정책'을 주제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과 조례 제정의 중요성,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둘째 날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이어졌다. AI브랜딩연구소 김동석 소장은 '챗GPT 활용 방안'을 주제로 생성형 AI의 이해와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의정활동과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한 당선인들은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미래 기술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도민의 선택에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당선인 모두가 워킹 정신으로

전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앞으로 민선 9기 당선인들과 함께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올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4조1000억원

작년 동기 대비 60조1000억원보다 23.4% ↑
민간 부문 대형산업시설 투자 확대가 주도

국내 건설경기가 반도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민간 투자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26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에 따르면 올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총 7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0조1,000억원)보다 23.4% 증가한 규모다.

이번 증가세는 민간 부문의 대형 산업시설 투자 확대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부문 계약액은 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또한 발전소와 부산항 관련 사업 등이

계약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민간 부문은 49조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건설사업이 계약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종별로는 토목 분야 계약액이 29조원으로 35.8% 증가했다. 특히 산업설비 부문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영향으로 11조원을 기록해 무려 158.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순수 토목은 17조원으로 6.0% 증가했고, 조경 분야도 1조원으로 6.0% 늘었다.

건축공사는 민간 공장 증설 사업 등의 영향으로 45조1,000억원을 기록하

며 전년보다 16.6%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 건설사의 실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은 3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2% 증가했다. 이어 51~100위 기업은 4조5,000억원(0.3% 증가), 101~300위는 5조3,000억원(6.8% 증가), 301~1,000위는 6조5,000억원(24.9% 증가)을 기록했다. 나머지 기업들도 20조1,000억원으로 8.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율입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사 현장 기준 수도권 계약액은 39조2,000억원으로 41.8%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34조9,000억원으로 7.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 기업 계약액이 47조7,000억원으로 48.2% 급증한 반면, 비수도권 기업은 26조3,000억원으로 오히려 5.4% 감소해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계약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2년 2분기 이후 2023년 3분기 45조5,000억원까지 감소했지만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계약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 2분기의 약 89.6%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완주 용진초 5~6학년 학생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완주 용진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했다.

이번 모의의회에 참여한 학생 14명은 직접 의원 역할을 맡아 3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심의, 찬반토론 및 표결 등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실제 본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자유발언과 조례안 심의, 찬반토론 및 전자표결에 참여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형우 사무처장은 "오늘 모의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